

# KERI Brief

## 법인세를 폐지한 국가, 에스토니아: 한국에 주는 시사점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khyun@keri.org)

한국에선 법인세제를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율 체계도 세 단계 누진구조이다.

에스토니아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 조세정책을 가장 획기적이며 선두적으로 개혁한 국가이다. 2000년에 개인배당을 제외한 법인이윤에 대한 법인세를 폐지하였다.

이는 레퍼곡선(Laffercurve)에서 주장하는 세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하여, 세수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법인세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여 세수입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에스토니아의 법인세 폐지정책은 한국의 법인세 정

책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므로, 이를 통해 한국의 법인세제에 대한 인식변화와 개혁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1. 에스토니아에 대한 개요

### □ 일반현황

- 정식 명칭은 Republic of Estonia, 수도는 탈린 (Tallinn)
- 발트 해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러시아 및 라트비아와 접경
- 국가 면적은 약 45,228km<sup>2</sup>로 한반도의 1/5 수준이며, 인구는 약 136만 명
- 1991.08.20.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빠르게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화함.

### □ 경제<sup>1)</sup>

- 2000년 이후 단행된 경제 개혁으로 높은 성장률과 경제 발전을 이룩. 발트해 국가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Baltic Tiger'라고 불림.
- 2004년 5월 EU의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현지 통화인 kroon을 사용하다 2011년 1월부터 유로화 도입
- 2008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의 중기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 그러나 경제위기를 거치며 총산출과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 주요 거시지표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변동

성을 보임. 국내 기반이 약해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평가

- 2011년 기준으로 1인당 GDP는 21,900달러이며, 2013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sup>2)</sup>에서 185개국 중 13위, Ease of Doing Business Index<sup>3)</sup>에서는 21위에 랭크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평가됨.

## 2. 2000년 법인세 폐지정책

### □ 1994년 단일세(flat tax)를 도입하여 개인소득, 법인소득, 자본이득 모두 26%의 세금 부과

- 유럽연합의 출현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과세대상인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졌고, 국제적 세율인하 경쟁이 나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유동적인 노동과 소비로 과세부담을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였음.
- 법인세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해 비효율성이 유발됨을 우려

### □ 2000년에 법인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였음.

- 법인의 이익에서 배당을 제외한 유보이익에 대해 0%의 법인세를 적용
- 총배당금에 대해서만 26%로 과세하며, 과세 시점을 주주에게 수익이 배분되는 시기로 조정하여 조세채무 부담을 경감시킴.

- 2005년부터는 배당에 대한 세율도 점차로 낮춰 2013년 현재 21% 수준 유지

1) OECD, Economic Surveys Estonia, 2012.

2) An annual guide published by The Wall Street Journal and The Heritage Foundation

3) The index published annually by the World Bank and IFC

[표 1] 총배당에 대한 법인세율 변화

구분	2000	2005	2006	2007	2008
법인세율	26%	24%	23%	22%	21%

출처 : Estonian Tax and Customs Board

### 3. 법인세 폐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

#### 1) 정부의 조세 수입

- 2000년 개혁 이후 법인세 수입이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2001년 저점 이후로 빠른 속도로 회복.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법인세수 규모는 평균적으로 매년 33%씩 증가

- GDP 대비 법인세수 또한 2000년 0.92%로 전년 대비 50%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빠르게 증가해 2003년부터 이전 수준을 회복함. 2000년 이후 에스토니아의 GDP가 매년 약 8%씩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상당한 증가율

- 레퍼곡선(Laffer curve)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세금 감면이 동태적 측면에서 투자와 생산을 증대시켜 결국 조세 수입을 증가시켰음.

[표 2] 법인세 수입 추이

구분	법인세 수입 (단위: 천 유로)	법인세수 증가율	GDP 대비 비중
1996	56,945		1.6%
1997	78,509	37.9%	1.8%
1998	122,333	55.8%	2.4%
1999	104,738	-14.4%	2.0%
2000	54,612	-47.9%	0.9%
2001	47,822	-12.4%	0.7%
2002	86,156	80.2%	1.1%
2003	137,822	60%	1.6%
2004	161,189	17%	1.7%
2005	159,551	-1.0%	1.4%
2006	199,622	25.1%	1.5%
2007	260,996	30.7%	1.6%
2008	266,257	2.0%	1.6%
2009	256,310	-3.7%	1.9%
2010	193,756	-24.4%	1.4%
2011	201,052	3.8%	1.3%

주 : 2011년 이전의 자료는 공식 환율(1 euro = 15.6466 Estonian kroons)로 변환되었음  
 자료 : Bank of Estonia, Statistics of Estonia, Ministry of Finance of the Republic of Estonia

## 2)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 경제성장률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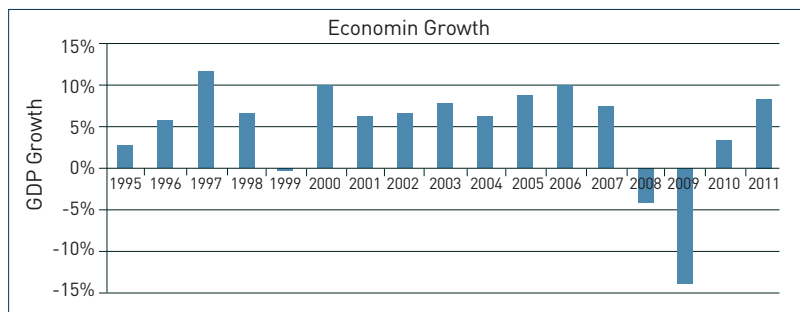
- 1993~1999년에는 평균 3.85%, 1999년에는 0%를 기

록했던 성장률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기하)  
경제성장률 7.93%를 기록

[표 3] 에스토니아의 경제성장

구 분	GDP(단위 : 백만 유로)	경제성장률 (%)
1995	2,766.1	2.8
1996	3,635.8	5.7
1997	4,481.5	11.7
1998	5,032.1	6.7
1999	5,358.3	-0.3
2000	6,159.6	10.0
2001	6,970.7	6.3
2002	7,776.1	6.6
2003	8,718.7	7.8
2004	9,685.1	6.3
2005	11,181.5	8.9
2006	13,390.6	10.1
2007	16,069.2	7.5
2008	16,234.8	-4.2
2009	13,761.4	-14.1
2010	14,322.5	3.3
2011	15,951.2	8.3

주 : 경제성장률은 연쇄가중법(Chain-linked series)을 적용하여 산출  
출처 : Bank of Estonia



법인세를 폐지한 국가, 에스토니아: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외국인 직접투자 부문(Foreign Direct Investment)

-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FDI inflow) : 1999년 284백만 유로에서 2000년 425백만 유로로 급증, 2003년에는 약 3배인 822백만 유로 달성. 특히 외투기업의 수익재투자(Reinvested profit)규모는 5년 동안 1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sup>4)</sup>
-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순외국인 직접투자(net FDI) 규모도 증가

- 동태적 일반균형모델(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분석에 따르면 에스토니아의 세제개혁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결과<sup>5)</sup>

4) Ministry of Finance of the Republic of Estonia, 2005, Estonian macroeconomic indicators before and after the corporate tax reform in 2000.

5) Michael Funke, Holger Strulik, 2003, "Taxation, growth and welfare: Dynamic effects of Estonia's 2000 income tax act, Bank of Finland Institute for Economics in Transition (BOFIT)"

[표 4]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

(단위: 백만 유로)

	FDI 유입액	FDI 유출액	순 FDI	FDI 유입액 증가율
1995	147.8	-2.0	146.0	
1996	116.0	-31.0	85.0	-21.5%
1997	236.1	-122.3	113.8	103.5%
1998	515.9	-5.2	510.8	118.5%
1999	284.3	-79.2	205.1	-44.9%
2000	424.7	-66.7	358.0	49.4%
2001	602.7	-225.5	377.2	41.9%
2002	306.8	-139.9	166.9	-49.1%
2003	822.2	-137.4	684.8	168.0%
2004	770.8	-216.6	554.2	-6.3%
2005	2,307.3	-556.0	1,751.3	199.3%
2006	1,431.9	-881.6	550.3	-37.9%
2007	1,985	-1,276.5	708.5	38.6%
2008	1,181.8	-760.2	421.6	-40.5%
2009	1,324.5	-1,113.9	210.6	12.1%
2010	1,207.3	-107.1	1,100.2	-8.8%
2011	185.0	1,049.1	1,234.1	-84.7%

주 : 2011년 이전의 자료는 공식 환율(1 euro = 15.6466 Estonian kroons)로 변환되었음  
 자료 : Bank of Estonia, Annual Economic indicators 1995~2012

□ 총투자 부문(Total Investment)

- 새로운 법인세율 적용 후 총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총투자율이 가속화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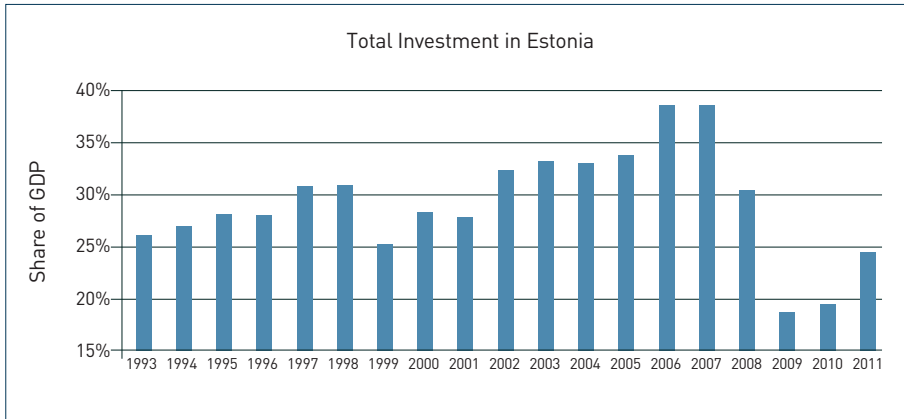
- 법인세 폐지 이후로 기계설비 부문 자본량이 매년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증가량이 6.07%로 수렴하고 그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측<sup>6)</sup>

6) Michael Funke, 2001, Determining the taxation and investment impacts of Estonia's 2000 income tax reform, Bank of Finland Institute for Economies in Transition(BOF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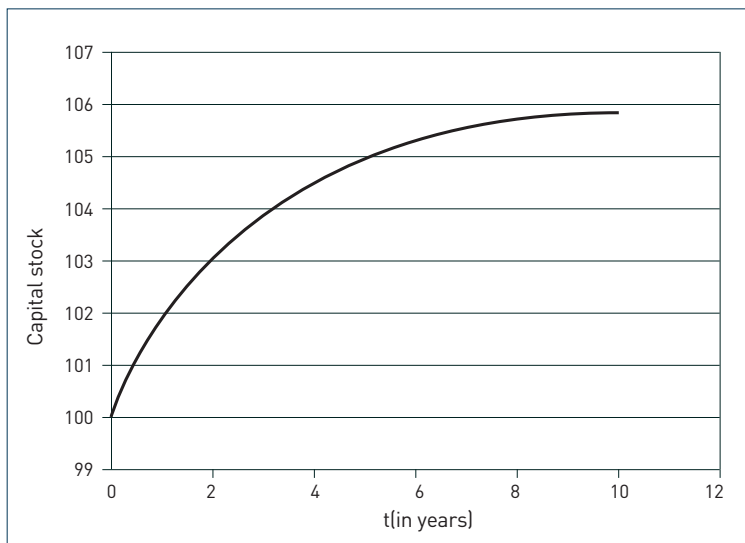
[표 5] 에스토니아의 GDP 대비 투자액 비율

구분	총투자율(%)
1993	26.1
1994	27.0
1995	28.2
1996	28.1
1997	30.9
1998	31.0
1999	25.3
2000	28.4
2001	27.9
2002	32.3
2003	33.1
2004	33.1
2005	33.8
2006	38.7
2007	38.6
2008	30.4
2009	18.8
2010	19.5
2011	24.5

출처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2012)



[그림 1] Effects Enterprise Income Tax Reform of 2000



출처 : Michael Funke, 2001, Determining the taxation and investment impacts of Estonia's 2000 income tax reform

#### 4. 정책 시사점

□ 한국에서 법인세제는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원조달을 위해 우선적으로 세부담을 인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함.

- 한국의 법인세 체계는 세 단계의 누진단계로서, 특이한 구조를 가짐.

□ 법인세제는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이 가장 활발한 세목으로, 각국의 법인세율이 인하하는 추세이나, 세수감소 우려로 인해 법인세를 폐지한 국가는 없었음.

- 에스토니아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는 법인세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법인세를 폐지하는 획기적 개혁을 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세수 확보의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였음.

- 에스토니아의 법인세 폐지정책을 통해, 한국에서 법인세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음. 성장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복지정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게 됨.

- 에스토니아가 법인세 폐지를 통해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한 것과 반대로, 한국이 법인세 인상정책을 펴면, 장기적으로 경제회복과 세수감소란 두 가지 정책실수를 동시에 겪을 수 있음.